

수원시, 서수원 종합병원 설립 '첫발'

덕산의료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경기 수원시가 서수원 지역에 병상 1000개 규모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첫발을 뒀다.

수원시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과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설립에 필요한 용지 확보와 토지 매입, 부지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또 법령 범위 안에서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을 도와 병원 설립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덕산의료재단은 서수원 지역에 병상 1000개 이상의 종합병원을 설립하되 1단계로 2020년까지 병상 450개 규모로 개원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원시민과 수원시 소재 학교 졸업생들에게 병원 취업기회를 우선으로 제공하고 건설 과정에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도 합의했다.

양 기관은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지 선정부터 병원 설립까지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강병직 덕산의료재단 이사장,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염 시장은 "서수원 지역 주민들에게 큰 선물과도 같은 종합병원 건립 사업을 민선 6기 임기 내에 시작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훌륭한 병원이 완공돼 서수원권 주민들이 부족함 없는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수원 지역 종합병원 건립은 염태영 시장의 민선 6기 100대 약속사업의 하나다.

평·서둔·구운·금곡·호매실·일북동 등 서수원 지역 6개 동 2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은 인근에 종합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수원시에서 병상 100개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춘 종합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안구),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동수원병원(팔달구), 아주대학교병원(영통구) 등으로 모두 도심 내지는 동수원권에 있다.

김재원 조사위원



표고버섯 주산지인 영동군에서 농민들이 종균 접종을 하고 있다.

영동군청 제공

영동군, 청정자연 표고버섯 종균 접종 '한창'

전국적인 표고 주산지로 유명한 충북 영동에서 표고버섯 종균 접종으로 명품 버섯 생산 준비가 한창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표고 재배를 시작한 영동군은 고품질의 표고버섯으로 유명하다. 낮과 밤의 큰 일교차로 육질이 쫄깃하고 표고 고유의 향을 듬뿍 머금은 게 특징이며 1급 수계국물을 사용해 청정 농산물을 명성을 잇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표고재배 농가들이 20일경부터 참나무 원목을 길이 1.2m 크기로 자른 뒤 구멍을 파고 종균을 접종하고 있다. 상춘면 상도대리 어촌교 옆 상춘표고 영농조합법인

작업장에서는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길이 분주하다.

이곳에선 5천 본의 표고자목에 300kg 정도의 종균이 소요되며 이달 말까지 종균접종 작업이 계속될 예정이다.

접종된 원목은 서늘한 차광막 아래 일정 기간 눕혀 뒀다가 약 1년 6개월 후부터 표고를 생산하게 되며 3~4년 동안 1년에 5~6회 정도 수확할 수 있다. 내년 9월쯤 자연의 맛과 향이 가득 담긴 명품 버섯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

영동군은 지난해 99개 농가가 824톤, 73억 2800만 원어치의 표고버섯을 생산했다.

목진환 조사위원

동작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



태양광 미니발전소(거치형)가 아파트에 설치된 모습. 동작구청 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장우)가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태양빛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시설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을 대상으로 200W부터 1KW까지 설치 가능하며 1가구당 10만원의 보조금과 용량별 추가 보조금(500W까지 1400원/W, 500W~1KW까지 600원/W)이 더해져 차등 지원된다.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이 200~300W급 기준 월 60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고 예코 마일리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최대 5만원의 지원 혜택도 있다.

이효선 기자

화순군, 귀농인 정착 지원 나서 귀농인과 선도농가 멘토-멘티 일대일 약정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귀농인과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약정을 체결하는 등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에 발 벗고 나섰다.

화순군은 20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 2실에서 귀농인과 선도농가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사전교육에 이어 6개 팀 멘토-멘티 일대일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으로 귀농인이 연수생의 블루베리, 흑염소, 작두콩 과정에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실제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으로 귀농인의 영농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된 귀농연수생은 선도농가에서 한 달에 20일, 5개월 동안 희망작목에 대해 재배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자가영농 적용실습을 하게 된다.

김영미 기자 wood5001@



20일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에 이어 멘토-멘티 1대1 약정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교육에 참여한 귀농연수생에게는 매일 최대 8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선도농가에게는 월 4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급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귀농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하는 한편 현재 3개월간 귀농연수를 희망하는 화순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경남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순회 수리반 직원들이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다.

산청군청 제공

산청군 "고장난 농기계, 고쳐드려요"

산청군농기센터, 12월까지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경남 산청군농업기술센터(소장 조성제)가 12월까지 매주 1회 마을을 순회하며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 수리반은 농기계 고장과 안전사고 방지 등 농민 불편 사전 해소와 자가정비 수리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된다.

수리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예초기 등 소형기종의 농기계로 부속 작업기 수리 후 안전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농기계에는 야광반사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또 교통법규 준수와 농기계 점검·정비의 습관화, 안전화 등 작업 복장 착용 요령과 현장수리 교육, 응급처

치 등도 지도한다.

수리비용과 3만원 이하의 부품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3만원 초과 금액만 농가에서 지불하면 된다. 현장에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관리업소나 제조업체로 수리를 안내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사전 안전 점검은 필수"라며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덕 조사위원

Sylvanian Families TOWN
실바니안 패밀리

타운 그랜드 백화점 디릭스 시트

NEW COMING SOON!

함께하면 재밌는 시리즈

- 타운 디자이너 스튜디오
- 타운 젤라도 샵
- 타운 실바니안 트램

공식 팬클럽에서 놀아요
www.sylvanianfamilies.co.kr
실바니안 패밀리

네이버 마니카와 놀아요
네이버 대표카툰 실바니안 세상
실바니안 세상

Like a child
(주) 토이트론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36
Tel.02-3471-1454 | www.toytron.co.kr